FNC, 글로벌 오디션 개최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가 2019년 글로벌 인재 발굴에 나선다.

FNC는 3월 뉴욕을 시작으로 캐나다 토론토, 뉴질랜드 오클랜드,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 전 세계를 돌며 글로벌 오디션 '2019 FNC 픽업 스테이지(2019 FNC PICK UP STAGE)' 를 개최한다.

지원자들은 FNC의 차별화된 부문인 악기를 비롯해 보컬(랩), 댄스, 연기, 모델 등 총 5개 부문 중 자신 있는 한가지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오디션 참가자 중 우수자에게는 FNC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더욱 열띤 참여가 기대된다.

'2019 FNC 픽업 스테이지' 오디션은 만 12~22세까지 국적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디션 당일 현장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도시 별 상세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FNC오디션 공식 홈페이지(www.fnc-audition.com)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FNC는 우선 뉴욕 오디션 일정을 공개했다. 뉴욕 오디션은 오는 30일 Born Star Training Center New York (213 st 117th st New York NY 10035)에서 열린다.

FNC의 소속 가수는 밴드 FT아일랜드, 씨엔블루, 엔플라잉과 보이그룹 SF9, 걸그룹 AOA 등이 있으며, FNC의 첫 글로벌 걸그룹인 체리블렛이 2019년 1월 데뷔했다.

NCT 127, 4월 북미 11개 도시 투어

첫 월드투어 중인 NCT 127이 북미 11개 도시 공연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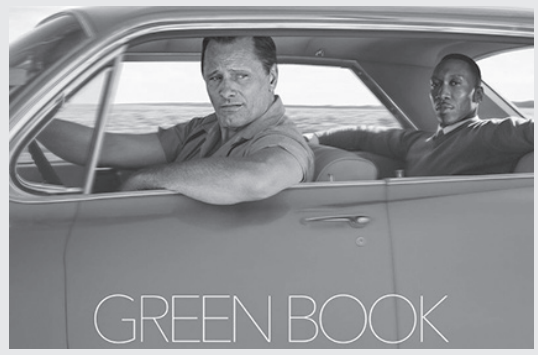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들이 4월 24일 뉴저지 푸르덴셜 센터를 시작으로 애틀랜타, 마이애미, 댈러스, 피닉스, 휴스턴, 시카고,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밴쿠버, 토론토까지 미국과 캐나다 11개 도시에서 12회에 걸쳐 투어를 펼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SM은 "북미 11개 도시 공연은 한국 남자 아이돌 그룹 사상 최다 기록" 이라며 "NCT 127은 이번 투어와 함께 현지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미국 활동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첫 월드투어 '네오 시티-디 오리진' (NEO CITY -The Origin)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시작해 오사카, 히로시마, 이시카와, 홋카이도, 후쿠오카, 나고야, 사이타마 등 일본 7개 도시 14회 투어가 진행 중이다. 아시아를 비롯해 미주, 유럽까지 확장해 대규모 투어로 열릴 예정이다.

NCT 127은 지난해 미국 데뷔 앨범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86위에 올라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에 이어 보이그룹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또 ABC TV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에 출연하고 음악 시상식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레드 카펫 행사에도 참석했다.

'그린북' 아카데미 작품상 영예



영화 '그린북' 이 오스카 작품상을 받았다.

지난 25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로마, '블랙팬서' , '블랙클랜스맨' , '보헤미안 랩소디' ,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 '스타 이즈 본' , '바이스' 등을 제치고 최고 영예를 안았다.

그린북은 전미비평가협회로부터 올해의 영화상을, 골든글로브 뮤지컬코미디 부문에서 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그린 북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1962년 미국을 배경으로 천재 흑인 음악가 돈 셜리(마허샬라 알리)와 다혈질 백인 운전사 토니 발레롱가(비고 모텐슨)가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보헤미안 랩소디>의 라미 말렉이 남우주연상을, <더 페이버릿:여왕의 여자>의 올리비아 콜맨이 여우주연상을, <로마>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다.

1253호 숫자퍼즐 정답

5	8	1	6	9	2	7	4	3
9	7	3	1	8	4	5	2	6
4	6	2	3	5	7	9	8	1
1	3	4	5	2	6	8	9	7
8	5	9	7	4	3	6	1	2
6	2	7	8	1	9	3	5	4
7	1	8	2	6	5	4	3	9
3	4	5	9	7	1	2	6	8
2	9	6	4	3	8	1	7	5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타고난 팔자(八字)에 부인이 없으니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어느 50대의 남성분과 상담을 하면서 필자가 먼저 건넨 이야기는 " 선생님께서 타고난 그릇 자체는 그래도 전문 기술직이나 엔지니어링 계통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그러나 타고난 팔자와 지금까지의 운(運)의 흐름을 볼 때 그동안 배우자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 부인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으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긴 하지만 이제 점점 나이도 들고 더 늙어지면 노후에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요. 원장님 제가 더 늙기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어서 필자가 답해준 이야기는 "선생님께서 타고난 팔자가 원래 배우자의 덕이 박한 팔자가 됩니다. 더구나 장기적인 운(運)의 흐름도 원만한 배우자의 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운로(運路)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 만약에 양띠를 만난다면 인연을 맺을 수는 있으나 공식적인 서류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한 집에 살아도 반드시 서로가 잠을 자는 방을 따로 써야 또다시 배우자 인연에 굴곡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이 묻는 말이 "왜 그런가요 ?"라고 묻는다. 이어서 필자가 해준 말은 " 선생님께서 타고난 팔자 자체가 배우자의 덕이 박하고 또 운(運)의 흐름도 원만한 배우자의 덕을 기대하기 어려운 운의 흐름이 되니 타고난 팔자와 운(運)의 흐름에 순응하는 형태로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잠자는 방을 따로 쓴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부부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고난 팔자의 분수와 운의 흐름에 순응하는 모양새를 대로 살아야 탈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 직업, 사업, 재물 |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 풍수지리 출장 감정 |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